

지방선거 앞두고 ‘해저터널’ 건설 제안 봇물

여수~남해 이어, 전남도 삼학대교 대체할 터널 논의 착수

전남~제주는 심포지엄 준비… 韓·日, 韓·中 건설 제안도

정부가 한려대교(여수~남해) 대신 해저터널 건설을 추진(광주일보 1월 3일자 1면) 키로 한 데 이어 전남도가 삼학대교(영암~목포)를 대체할 터널 건설 논의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중,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제안하는 등 해저터널 구상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중국이 대형 해저터널 건설을 잇따라 추진하고, 기술 발달로 해저터널이 다리에 비해 건설비가 저렴해지면서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앞다퉈 ‘해저터널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16일 전남도는 “내년도 국고건의 신규사업에 포함된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목포시

삼학동을 잇는 삼학대교(2km) 대신, 해저터널을 뚫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 구간에 예산 3200억원을 투입해 삼학대교를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해저터널이 다리에 비해 예산의 70%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방향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호남선 KTX 광주 송정~목포 임성 노선이 무안공항 경유로 결정되면서 애초 계획보다 늘어난 이동거리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도 해저터널이 필요하다는 게 전남도의 생각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호남선 KTX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향후 전남~제주간 해저터

널 건설을 고려했을 때 다리 대신, 더 효율적인 해저터널을 뚫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학대교 구간에 해저터널을 뚫은 뒤 전남~제주간 해저터널과 호남선 KTX를 연결하자는 것이다.

전남~제주 해저터널은 목포~해남(66km)은 지상, 해남~보길도(28km)는 해상, 보길도~추자도~제주도(73km)는 해저로 연결하는 고속철도로 총연장 167km에 사업기간은 11년, 사업비는 14조6000억원을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전남~제주간 해저터널 국제심포지엄’을 준비하는 등 해저터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건설비용과 실현 가능성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려 건설 계획이 한동안 수면 아래 잠겨 있었다.

해저터널은 전남만의 생각은 아니다. 정부는 섬진강 일대 영호남 지역을 개발하는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려대교(사업비 1조4000억원·4.4

km)를 건설하는 대신, 같은 위치에 사업비가 덜 드는 해저터널(5000억원)을 뚫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 SOC 사업에 앞서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다리를 세우는 것보다는 해저터널의 경제성이 더 낫기 때문에 나온 방안이다.

또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최근 한·중 해저터널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며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지난 6일 부산에서 열린 (사)한일터널연구회 정기총회에서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제안하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 곳곳에서 해저터널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편 현재 국내 최장 해저터널은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과 경남도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를 잇는 거가대교에 완공된 가덕해저터널(3.7km)이다. 또 보령~태안을 잇는 보령해저터널(6.9km) 건설도 지난해 착공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이홍재의 세상만사

한국인 교황을 기대하며

포항제철에 들어가기 위해 철학과를 지원했다는 사람이 있었다. 인간의 근본을 연구하는 철학(哲學)이 아니라 쇠를 다루는 철학(鐵學)으로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다.

안중근 의사는 무슨 병을 치료했나요? 초등학생 사이에 이런 엉뚱한 질문이 나오

는 것도 의사(義士)와 의사(醫師)를 혼동하기 때문이다. 한자 문맹(文盲)에서 오는 웃지 못할 얘기다.

이런 판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이라 해서 크게 다를 바 없다. 가령 ‘추기경’ 같은 단어를 한자로 쓸 수 있는 이는 얼마나 될까, 과거 자유당 시절 어느 유명한 정치인마저도 추기경(樞機卿)을 ‘구기경’으로 발음해 웃음거리가 됐더니 말이다.



노설고문

를 포함해 19명의 새 추기경을 지명했다. 1969년 고(故) 김수환 추기경과 2006년 정진석 추기경에 이은 한국의 세 번째 추기경이다. 엄 추기경은 80세 미만의 추기경이라 정진석(83) 추기경과는 달리 교황 선출권도 갖는다.

엄 추기경은 웅기장이 신양의 순교자 집안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엄 추기경의 두 동생도 사제다.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3형제 신부를 낸 집안인 셈이다. 엄 추기경의 영세명은 ‘안드레아’. 한국의 첫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본명(세례명)이 같다.

구약성서의 창세기에는 바벨탑에 관한 짧은 이야기가 나온다. 높고 거대한 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 했던 인간들의 오만한 행동에 분노한 신들은, 본래 하나였던 언어를 여럿으로 분리하는 저주를 내렸다. 바벨탑 건설은 결국 혼돈 속에서 막을 내렸고, 탑을 세우고자 했던

세 번째 추기경 탄생

추기경에서의 ‘경’(卿)은 높은 벼슬에 대한 경칭이니 더 이상 설명할 필요를 못 느낀다. 하지만 ‘추’(樞)라는 한자는 상당히 어렵다. 원래는 문짝이 회전할 때의 굴대를 받는 구멍을 말하는데 그곳은 문짝의 개폐(開閉)에 중요한 곳이므로 ‘중요’(重要)의 뜻이 됐다고 한다.

중추신경이라 할 때의 ‘중추’(中樞)를 보면 이의 쓰임새를 알 수 있다. 사물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나 자리를 말한 바. 고려 시대 왕명(王命)의 출납(出納)이나 숙위(宿衛) 등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기관의 이름도 추밀원(樞密院)이었다.

추기경에서의 ‘기’(機)는 기틀이며 ‘추기’(樞機)는 중추가 되는 기관(機關)을 말한다. 추기경(cardinal)을 뜻하는 라틴어인 카르디날리스(cardinalis)도 원래는 문짝에 다는 물체·지도리·경첩을 말했는데 나중에 ‘주요 인사’ 내지는 ‘우두머리’를 가리키게 되었다 한다.

추기경으로 임명이 되면 순교를 뜻하는 붉은색 수단(soutane)을 입게 된다. 추기경을 다른 말로 홍의교주(紅衣敎主)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추기경은 가톨릭교회에서 교황 다음의 권위와 명예를 누리는 고위 성직자다.

이번 주는 참으로 유쾌한 소식으로 한주가 시작되었다. 신문들은 “한국에 새로운 축복의 빛이 내려왔다.”고 썼다. 바티칸시 납아은 ‘일요일 밤의 선물’, 엄수정(71) 서울대교구장이 한국의 새 추기경이 된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에 엄 대주교

무너뜨려야 할 바벨탑

엄 추기경은 또 “눈에 백태가 끼면 세상을 바로 볼 수 없다.”는 구상(1919~2004) 시인의 시(詩)를 인용하면서 아집과 욕심을 버려야한다고 했다. 착한 목자(牧者)가 해야 할 첫 직무는 뿔뿔이 흩어진 양들을 하나로 모아 화해하고 일치하고 공존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분열과 갈등을 넘어선 화해와 공존이다.

목포 출신으로 현재 광주대교구장인 김희중(67) 대주교가 이번에 추기경이 되지 못하고 그저 물망에 오른 데 그친 건 좀 아쉬운 일이다. 하지만 이번 새 추기경의 탄생은 500만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쁘게 반기들일 일이다. 이제 복수 추기경 시대가 열렸다. 언젠가는 한국인 교황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을 것이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모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축복을!



6일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지방신문협회 제37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사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여창환 매일신문 사장,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이희중 강원일보 사장, 송광석 경인일보 사장, 정충건 경남신문 회장, 남성현 대전일보 사장, 이명관 부산일보 사장, 오영수 제주일보 회장. <경인일보 제공>

한국지방신문협, 지방선거 공동 뉴스룸 운영키로

정기총회… 송광석 회장 연임

여론조사 등 정보 교환·공유

광주일보 등 전국 주요 9개 지방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 6대 회장에 현 송광석(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 회장이 연임됐다.

한신협은 16일 경인일보 신사옥에서 9개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37차 정기총회’를 열고 송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

치로 결정했다. 송 회장은 이에따라 오는 2016년 2월까지 2년간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신협은 또 이날 국회의원·지방선거 공동 뉴스룸 운영과 언론진흥재단 광고대행 수수료 하향조정 등 6개 일반 안건과,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간담회 실시 등 4개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신협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회원사간 공동 뉴스룸 운영을 통해 공동 여론조사 및 선거기획은 물론, 지역

별 민심동향과 선거관련 제반 정보를 교환·공유하기로 했다.

회원사 대표들은 또 현행 10%인 언론진흥재단의 광고대행 수수료를 5%로 낮추기로 합의,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분권국민운동 본부와 간담회를 개최, 정당공천 폐지문제 등 각종 정치현안과 관련한 공동기획을 준비하기로 했다.

/경인일보=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

전남도, 반부패 경쟁력 2등급

광주·전남 공공기관 중 최고

전남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 중 가장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전남도는 2등급, 광주시는 3등급을 받았다. 평가대상에 포함된 광주·전남 기관 가운데 2등급(우수) 이상을 받은 곳은 전남도가 유일했다.

전남도는 청렴의무 위반행위로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음 수수 후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 조치가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모두 4등급에 포함됐고, 목포해양대는 3등급을 받았다. 또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는 3등급을 받았고, 광주 환경공단은 4등급이었다.

전체 5등급으로 분류한 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등급은 1곳(경기도) 뿐이었고 2등급은 전남도를 포함 강원도, 충청북도 등 3곳이었다.

한편 이번 평가는 41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 10개 국·공립대, 140개 공공기관 등 2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 131226-증-52297호

노안시려 노안교정

박은광주안과 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전로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박은광주안과

도대체 스피치 말을 어떻게 잘 할수 있을까?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춘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의 스킬을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실 분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탁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탁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흥암지점 | 653-4474